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대한민국에 ‘신(新) 카스트’ 제도가 생기고 있다?

〈사 례〉

A씨는 “지금보다 대입 수시 비중을 낮추고, 학력고사도 부활시켜야 한다.”며 “시험 기회를 1회 이상 공정하게 부여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국내 현실에선 그래도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드니 서민들은 법조인이 되는 게 어려워졌다.”며 “행정고시 유예기간이 폐지돼 해마다 1, 2차를 같이 응시해야 하니 수험기간이 길어진다.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가난한 서민들은 합격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씨는 “기득권층이 흙수저의 신분상승 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며 “작금의 대입 제도가 그렇고, 로스쿨이 그러하며, 중학생 자유학기제도 그렇다. 대부분의 제도가 재산 많은 이들, 권력을 쥔 사람들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D씨는 “흙수저 맞벌이 부모가 무슨 돈으로 자녀를 각종 예체능 대회에 출전시키고, 해외 봉사 활동을 보내주겠냐.”며 ‘수능 비중이 높을수록, 정시가 더 공평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씨는 “법조인이 되려면 이제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데 이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등록금, 학원비가 든다.”며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극빈층이 더 많이 합격한다고 친 서민적인 제도라고 외치던 이들 지금 다 어디갔냐?”고 꼬집었다.

F씨는 “아무래도 잘 사는 가정에서 과외도 많이 시키니 공부도 잘 할 수 밖에 없지 않냐.”며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과외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성적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제 타고난 0.1%의 천재가 아닌 한 용이 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흙수저 학생’ 가운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중이 9년 사이 급감했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 가정의 학생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Level3)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2015년 36.7%로 70개 조사대상 지역 중 9위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위였던 2006년(52.7%)에 비해 16%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이같은 9년간의 하락폭은 핀란드(16.7%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이 비율은 2009년 51.3%로 떨어지면서 3위로 한 계단 밀렸다가 2012년 54.9%로 오르면서 2위로 복귀했지만 2015년 30%대로 급락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 저소득층 학생, 학업 성취도 갈수록 낮아져

2015년 PISA에서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3.1%를 기록한 홍콩으로, 2006년(52.5%)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내 또 다른 특별자치행정구인 마카오가 9년 새 13.8%포인트 상승한 51.7%로 3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에스토니아, 일본이 40%대를 기록하면서 3~5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 핀란드, 대만이 뒤를 이었다.

주요 경제국 중 독일(32.3%)이 12위, 영국(28.2%)은 19위였다.

2. 열악한 가정형편 극복하고 좋은 성적 받는 게 어려워진 현실

2015년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중국(베이징·상하이·광둥성·장쑤성)은 25.9%로 22위에 올랐다. 프랑스(24.1%)와 미국(22.3%)은 각각 28위와 31위를 기록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이 0%로 가장 낮았다. 코소보, 알제리, 페루, 튀니지 등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는 “이 비율이 상승한 국가가 평균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 질을 개선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줄여 형평성을 높여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정기적인 등교와 교실의 혼육적 분위기, 학교 내 과외 활동과 학업 탄력성 간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학생수당 컴퓨터 비율은 되레 한국 학생의 학업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규율 바른 교실에서 학습하도록 보장하고, 목적이 뚜렷한 과외 활동을 확충해 학교가 공정한 사회를 창조하는 동력원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인용)